

새로, 고쳐 엮는다

성북 선잠박물관

이은경

이엠에이건축사사무소(주) 대표

개요

위치	서울 성북구 성북로 96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대지면적	300m ²
건축면적	100m ²
연면적	339m ²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설계	이엠에이건축사사무소(주)
시공	원전종합건설
설계기간	2017. 3.~2017. 5.
시공기간	2017. 7.~2017. 12.
건축주	성북구청



선잠박물관 전경

선잠박물관은 선잠단 근처의 작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만들어졌다.
박물관으로 만들기에 작고 낡았지만 성북동의 역사적 풍경을 담아내는 위치에 있고
이미 박물관의 주 이용객인 주민들 속에 있는 건물이었다.



성북로 위 선잠박물관





한양도성을 마주보고
길게 뻗은 성북로에 위치한 박물관은
도착지가 아닌 거리에 존재한다.

리모델링 후 입면



© 김민지



© 김민지

길에서 바라본 야간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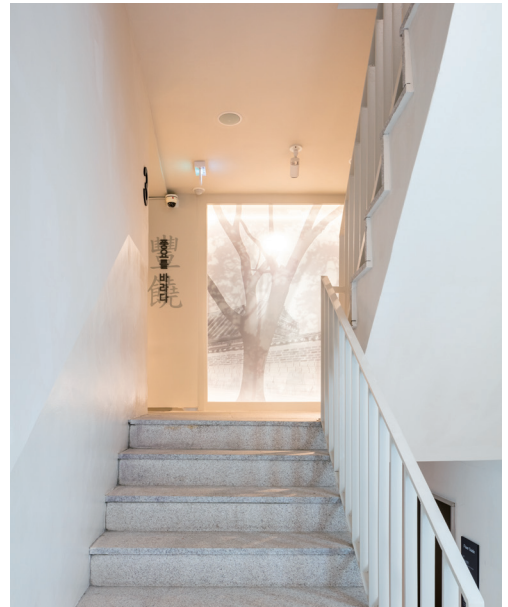
전시 공간



© 신경서



© 신경서



© 신경서

상 진입 홀
하·좌 알루미늄 파사드
하·우 계단 전시 공간

층을 오르며 전시를 연속적으로
관람하고 만나는 트인 공간은
시선을 외부로 열어 지역과의 관계를
경험하게 한다.



© 2014
R&B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된 성북동에 자리한 선잠단은 조선 시대 역대 왕비가 ‘누에로부터 좋은 실을 얻게 하여 달라’고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다. 1908년에 사직단으로 옮겨진 이후 터로 남겨져 있다가 최근에서야 연구를 통해 복원하는 정책사업이 추진되었다. 선잠박물관은 이를 확장하여 기존의 것을 살리며 역사적 가치를 깨우고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성북동 역사문화관광 거점이자 시민 문화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선잠단 복원 및 박물관사업 연구용역이 선행되어 선잠단의 복원 방향과 선잠박물관 건축 기획 및 전시 내용이 결정되었다. 선잠박물관 건축은 선잠단에 접한 부지에 들어선 주택들을 모두 매입하기 어려워 인근 성북초교 앞에 있는 공공 소유의 작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장소와 관계

성북동은 높은 산지 지형과 완만한 지형이 만나는 곳으로서 중심에는 성북천이 흐른다. 이 물길은 자연스럽게 보행길을 만들며 높은 지형의 골목길과 낮은 지형의 넓은 성북로를 이어준다. 성북로는 하루 성북천을 덮고 있기에 넓은 여유로움이 있는 성북동의 중심 보행로가 되었다. 이를 따라 걷다 보면 간송미술관, 성락원, 성북구립미술관, 최순우옛집, 심우장, 한국가구박물관 등 성북동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산을 만나게 된다. 선잠박물관은 이 성북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에 위치한다.

성북초교와 성북로 사이의 길쭉한 부지에 기관이 다르지만 3개의 공공건물이 있다. 선잠단과 가까운 순서로 가암펍프장, 파출소 그리고 선잠박물관이다. 초등학교와 성북로의 레벨 차이는 10m로,

© 12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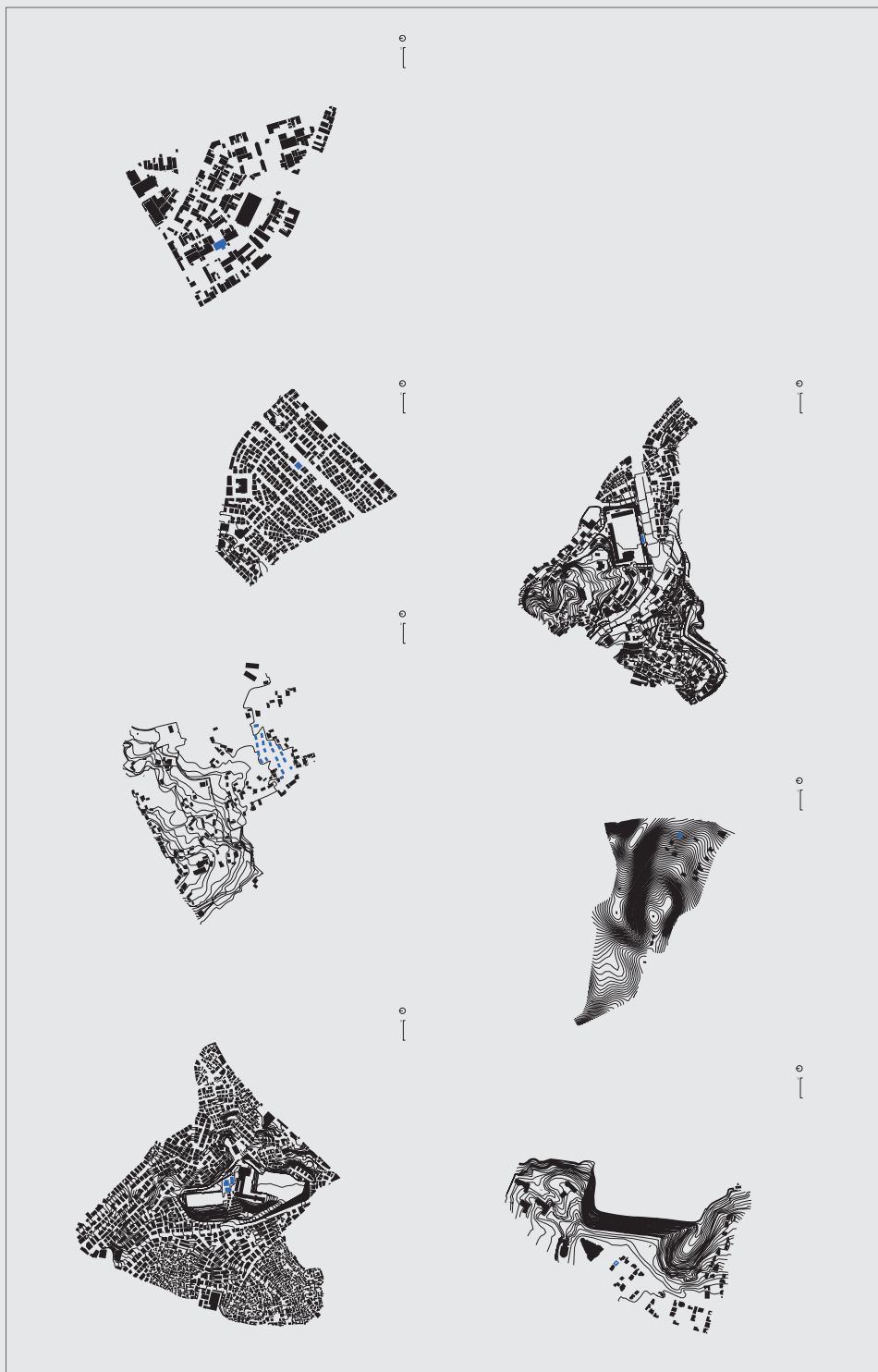


상 선잠박물관 전경
하 성북로 위 선잠박물관

© 이엘에이건축사사무소(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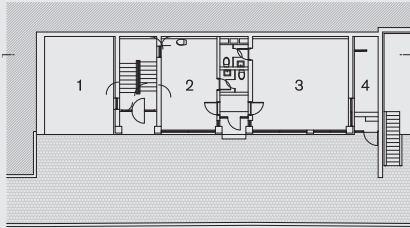


리모델링 전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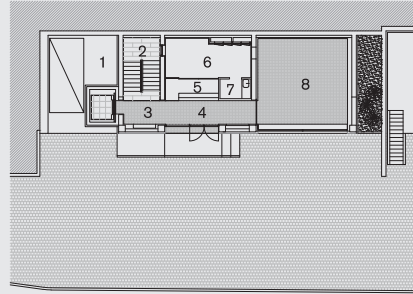
도시맥락

지상 1층 평면도(변경 전)
SCALE 1:300



- 1 주차장
- 2 할머니방
- 3 할아버지방
- 4 다용도실

지상 1층 평면도(변경 후)
SCALE 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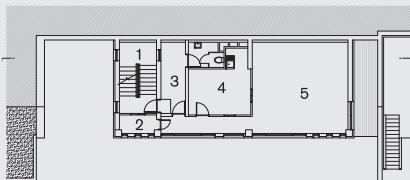


- 1 주차장
- 2 계단실
- 3 EV홀
- 4 복도
- 5 안내
- 6 사무실
- 7 탕비/창고
- 8 전시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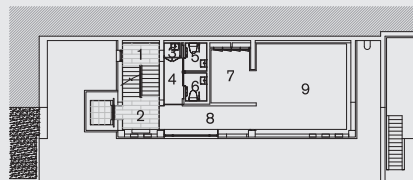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상 2층 평면도(변경 전)
SCALE 1:300



- 1 계단실
- 2 안내
- 3 전실
- 4 상담실
- 5 컴퓨터실

지상 2층 평면도(변경 후)
SCALE 1:300



- 1 계단실
- 2 EV홀
- 3 청소도구실
- 4 화장실 복도
- 5 장애인화장실(여)
- 6 장애인화장실(남)
- 7 수장고2
- 8 복도
- 9 전시실2



2층 평면도



© 건축사



상 리모델링 후 입면
하 알루미늄 파사드

이 건물들은 모두 초등학교를 옹벽으로 등지고 성북로를 넘어 남서 방향으로 서울성곽을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선잠박물관의 입면은 선잠단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성북동의 역사적 풍경을 드러낼 수 있는 장소적 가치를 담는 것이 중요해졌고, 이는 작은 건물 하나가 아니라 연속된 공공건물로서 미래의 경관까지 고려해야 하는 가치로 다가왔다.

파사드

선잠박물관 바로 앞에는 한양도성이 마주하고 있다. 긴 장벽이지만 산을 따라 곡면으로 올라가는 부드러움이 돌 물성과 대조되며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성벽이 단한 벽이라면, 이와 상대적으로 선잠박물관의 파사드는 가벼운 레이어로서 투과하는 벽(silk wall)이 된다. 알루미늄 질감으로 만들어진 파사드는 성북로를 따라 길고 곧게 뻗어나가서, 한양도성과 마주한 채 과거와 대화하며 역사적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리모델링 대상의 건물은 이미 노후화되었고 협소하여 미래에 언제든지 재건축되거나 옆 공공건물 부지로 확장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입면은 재활용되고 가변적이며 확장하는 구축방식을 택하고자 하였다. 누에에서 뽑아낸 실을 직조하여 만드는 비단처럼 입면의 구축방식은 하나의 단위가 연속적으로 조립되어 전체를 이루게 된다. 그리하여 한 건물의 입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는 선잠단 방향으로 확장하여 역사적 길을 연속적인 파사드로서 재해석된 풍경으로 이어가도록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리모델링

기존 건물은 전형적인 근린상가 건물로서 단면으로는 층고가 낮고, 평면으로는 배면이 옹벽과 일체화되어 있어 깊이가 별로 없는 건물이었다. 3개 층의 면적도 공립박물관의 등록을 위해서 상설전시장, 기획전시장, 수장고, 사무실, 자료실 등의 필요 시설을 계획하면, 모



연속적인 도시의 파사드

© 이엠에이건축사무소(주)

든 공간이 작게 나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실내는 바닥을 오픈하는 등의 입체적 공간 관계는 지양하고 최대한 가용면적으로 활용하여 1층은 상설전시장과 사무실, 2층은 상설전시장과 화장실, 3층은 기획전시장과 수장고로 계획되었다.

평면적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 전시장 관람자 동선에서 시선을 외부로 열어 공간의 확장 및 지역과의 관계를 경험하도록 하였다. 지붕은 한양도성으로 열린 전망을 제공하고, 1층 전시장은 원도와 접이식 전시장치를 통해 길에서 만나는 전시공간을 제공한다. 동선은 증축한 엘리베이터를 통해 올라가서 계단으로 내려오며 층별로 나뉜 전시를 연속적이고도 길게 체험하도록 잡았다. 아울러 기능적인 화장실과 사무실 공간은 숨기고, 계단이 전시의 확장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전체가 전시장 공간으로 길어진 이동 동선을 통해 체험의 시간을 늘리고자 하였다.

과정과 발주처

선잡박물관은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연구 결과 사업으로 기획되었고, 이후 박물관 기획연구용역을 거쳐 건축과 전시가 각각 발주된 사례이다. 건축은 소규모 공공건축물로서 한정된 예산 내에서 설계와 감리가 모두 수의계약으로 수행되었고, 전시는 실시설계 및 설치가 제안서 입찰을 통해 선정되었다. 전시보다 먼저 시작된 설계는 기획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하였고, 발주처인 성북구는 이러한 의도와 제안을 존중하여 무리한 변경과 요구가 없었으며, 시공 중 선정된 전문학예사와 개관 전까지 일부를 조율하며 일이 진행되었다. 전시시설 발주형식 특성상 건축과 상호 협업으로 동시에 진행될 수 없었던 점이 아쉬웠으나, 이는 유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대부분 제작을 하는 방식이 가진 한계일 것이다.

공공건축

현재 공공건축의 실현 과정은 많은 관계자에게 설계 의도를 전달하여 합의를 끌어내고, 3차원으로 종합되는 건물을 2차원의 분해되는 도면으로 그려내며, 낙찰가로 정해지는 시공사가 정해진 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되 전체적인 완성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디테일을 선택하고, 시공 현장에서 벌어지는 변수에 대응하며 설계 의도를 구현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01202020



상 전시 공간
하 진입 홀



© 2012 EBS



상 길에서 바라본 야간 경관
하 지붕 경관

이 같은 공공건축의 설계와 실현에서 발주처와 설계자의 갈등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요소는 계약일 것이다. 설계 계약에서 명시된 업무는 단순히 공공건축 업무 범위와 발주기준을 넘어서는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시와 환경 등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항상 건축행위와 맞물려 있으므로 설계행위는 점점 더 복잡적이고 협의를 요구하는 업무가 되어 가고 있다. 그 결과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를 예측하기 힘든 발주처는 계약서에 ‘관계된 업무 모두’라는 안전장치를 통해 설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설계자는 설계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외부적 요인으로 설계 기간이 늘어나도 발주처가 요구하는 것은 다해야 하는 불공정한 계약 상태에 놓인다.

이 때문에 설계자 대부분은 설계 공모에 당선된 후 발주처가 제시하는 「지방계약법」과 특약조항으로 만들어진 계약서를 보면서 과중함과 불공정에 대한 무거운 짐을 느끼곤 한다. 또한 공고 시 설계비에 누락된 비용을 요구해도 계약에 반영되지 않는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공공의 재산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일에 대한 설계자의 책임은 필요하다. 하지만 무한 책임을 설계자에게만 지울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대등한 관계 정립과 함께 명확한 업무의 범위가 명시되어야 하는 건축설계 업무의 발주·시행·운영 영역에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좋은 공공건축은 다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